

영암군, 공공체육시설 재휴관 돌입

코로나19 확산 방지 19일까지 2주간 운영 중단

영암국민체육센터·삼호종합체육센터 등 28개소

영암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군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군은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방

역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으로 인해 지난 3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을 임시휴관 조치했다.

영암군이 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은 영암국민체육센터, 영암종합스포츠타운(축구장, 공도장, 야구

장, 테니스장 등),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읍면계이트볼장 등 28개소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이들 시설들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임시 휴관으로 하고 향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휴관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실내 집단운동시설 1개소와 민간체육시설 67개소 등에 대해 방역물품 배부와 영암장별 예방수칙,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

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휴관 조치이니 군민 여러분들도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마스크착용 등의 방역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

기상전망 대처 사항·재난관리 협업기능 대응체계 점검 등

무안군은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군수 주재로 관계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른 대처 사항, 재난관리 협업기능 대응체계 점검을 통하여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김산 군수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산사태 우려지역, 하수도 시설, 하천, 노후 저수지 등 재해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선박을 신속히 인양하고 집중호우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연재난 발생은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전통시장, 코로나19로 임시 휴장

20일까지 2주간...확산 추이에 연장 여부 검토

영광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영광고추특화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영광전통시장(5일장)을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광전통시장 상인회(김길섭 영광전통시장 회장)의 협조를 얻어 임시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 6일이 들어간 날

열리는 영광전통시장(5일장)은 오는 11일, 16일 휴장한다. 임시 휴장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우리 군에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 순례자의 섬에 '공방 제작소' 들어선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섬공방과 MOU 체결



신안군과 중섬공방(대표 이미경)은 지난 2일 순례자의 섬 작은예배당을 주제로 하는 공예품 제작 공급을 위해 '순례자의 섬 공방 제작소' 설치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신안군에서 2017년부터

이미경 대표는 제주 서귀포시 이종걸거리에서 10여년간 서양화가 이중섭 작품을 모티브로 중섬공방을 운영하며,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고 여행객들과 소통한 예술인으로 신안군 순례자의 섬 기점·소야도로 이주해 온 제1호 예술인이다.

신안군은 옛 증도초등학교 대기점분교를 대수선하여 여행자들이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체험공방과 쉼터를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점의 순례길 12km 연장선에 현대인들의 지친 삶에 안식을 주는 '영혼의 쉼터'로 조성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도(島) 1뮤지엄(Museum) 프로젝트를 통한 문화와 예술, 휴식과 치유 등 방문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작은 섬을 가고싶고, 또 가고싶고, 꼭 가고싶은 섬으로 바꾸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례자의 섬으로 조성한 기점·소야도는 방문자 쉼터 기능을 하면서 기념품을 현장에서 제작·공급·판매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순례길을 체험하고, 추억할 수 있는 공유와 사색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목포=박정수 기자

목포시, 제12회 목포문학상 작품 공모

본상·남도작가상 상금 총 3400만원 수여...8월 17일까지 접수

목포시가 전국의 신인 및 기성 문인을 대상으로 '제12회 목포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목포문학상은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한국 문학을 이끌어온 선구 문학인들을 배출한 문향목포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9년 시작으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시조)·희곡분야에 각 5백만원, 수필·동시분야에 각 3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지역 작가에게 수여되는 남도작가상(전라남도)은 소설·시(시조)·수필·동시분야에 각 2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응모작은 미발표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소설·희곡은 각 1편, 시(시조)·동시 3편, 수필 2편을 제출해야 한다. 작품 접수는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우편(마감 당일 소인 유효)으로만 가능하며 당선작 발표는 9월 16일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가축폭염피해 사전예방 총력 기해

9억원 투입 5개 사업 지원

영암군은 가축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폭염일수가 20~25일로 평년(9.8일)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폐사 피해와 생산성 저하 등이 예상되어 국비와 지방비 9억원을 투입해 총 5개 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한우 미네랄블록 공급,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1,400여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다가올 폭염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여 폭염 및 각종 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가축 폭염피해 대책으로 농가에서는 환기팬 등을 이용해 축사 내부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여 온도를 낮춰줄 것을 강조하고, 여름철 사용량 증대로 인해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 시에는 전기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